

# 서울, '국제 관광도시' 발돋움... 투어·공연 등 콘텐츠 활성화

### 풍납토성 관광상품 개발 등 착수 인근 지역 분석 콘텐츠 활용 검토 관광객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난다.

23일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올해 미래 관광시장 육성, 서울스타일 매력 콘텐츠 활성화, 미래지향적 관광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재단은 미래 관광 먹거리 찾기의 일환으로 풍납토성 관광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풍납토성과 인근 지역 관광 환경을 분석해 관광 콘텐츠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부지 일대 관광 자원을 발굴한다. 역사문화콘텐츠 전문가와 함께 풍납토성 관광상품을 기획해 동남권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3·3·7·7(3000만 관광객·1인당 지출액 300만원·체류기간 7일·재방문율 70%)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발굴한다. 서울의료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관광객(외국인 환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여 관광 기초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무슬림(동남아·중동 지역)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재단은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하고 한강 수변 체험 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울스타일의 매력 콘텐츠 활성화에 나선다.

관광약자 여행 활동 지원책의 일환으

로 장애인 기관에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대형버스나 미니밴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차량 운행 비용을 지원하고 여행정보조기기(해변용 휠체어 등)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관광약자의 여행 편의를 제고,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관광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재단은 쉬엄쉬엄 한강 철인 3종 경기와 연계한 수변 체험 여행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올 5~6월 독서한강공원에서 대규모 한강 요가 클래스를 운영하고, 고래 조형물 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단은 관광업계 지원과 관광객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광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내달 1~22일 재단은 시 전역에서 서울스프링세일을 개최해 서울 소재 쇼핑·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해당 기간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쇼핑·관광 할인 및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행사 참여 업체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K-팝, 전통 공연을 상시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기존 B2B(기업 간 거래) 중심의 행사에서 C2C(개인 간 거래) 형태의 플라마켓 이벤트 확대 운영을 통해 특색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재단은 강조했다.

디스커버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으로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높인다. 디스커

버서울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장의 카드로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를 일정 시간 동안 둘러볼 수 있는 서울 관광 자유이용권이다. 테마파크, 유람선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교통·쇼핑·공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단은 기존 24·48·72시간권이었던 디스커버서울패스 권종을 48·72·120시간권으로 개편한다. 이용비율이 줄어든 24시간권 종료를 검토하고, 서울 관광 체류 일정 확대를 위해 120시간권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대하고 제휴 마케팅을 펼쳐 디스커버서울패스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인지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재단은 덧붙였다.

재단은 "관광약자 여행활동 지원, 관광객 정보 접근성 강화 등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의 여행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며 "관광콘텐츠 발굴로 트렌드 기반의 서울관광 수요를 창출,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비수도권 대학원, 학과 증설·증원 '자율화'

### 국무회의 '대학설립·운영규정' 통과 '석사→박사' 정원 조정비율, 1대1 완화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규정에는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원도 정원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 교원 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이현진 기자 lhj@

## DDP 10주년 새 슬로건 '어메이징 투모로우'

### '국민들에 놀라운 경험 선사' 의미

서울디자인재단은 올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어메이징 투모로우(Amazing Tomorrow)'를 새 슬로건으로 정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DDP디자인홀에서 슬로건 선포식과 포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놀라운 내일'이라는 뜻을 담은 신규 슬로건은 지난 2014년 개관 이후 10년간 사용해 온 '드림, 디자인, 플레이(Dream, Design, Play·꿈꾸고, 만들고, 누리다)'를 대체하게 된다.

2014년 3월, 당시 노후한 동대문 운동장과 풍물시장이 자리한 곳에 들어선 DDP는 개관 이후 뉴욕타임스가 꼽은 '꼭 가봐야 할 명소 52'에 선정되는 등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새 슬로건 '어메이징 투모로우'에는 우주선을 닮은 미래지향적 건물 디자인·첨단 시공 기술·콘텐츠로 무장한 동대문디자인 플라자를 통해 DDP를 방문하는 시민, 외국인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은 이달 26일 '서울의 놀라운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기념포럼을 열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체비에 나선다.

포럼에서는 커넥트(Connect), BTS의 강인연 작가가 최근 구글·NASA 등과 협업한 경험을 소개하며 'AI 혁신이 불러온 창조성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도쿄를 바꾼 빌딩들'의 저자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본부장이 서울의 경쟁력 강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경기북부 관광활성화에 3년간 441억 투입

### 대표 관광브랜드·콘텐츠 개발

경기도가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3년간 441억 4,900만 원을 투입해 오래된 관광지를 정비하고 대표 관광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북부 잠재 자원을 활용하고 침

체된 경기북부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잠재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만 다수의 관광지가 오래돼 체류 관광객 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아트 투어버스 ▲북부광역 시티투어 ▲힐링스테이 프로그램 ▲야간관광지 활성화 ▲음식문

화관광 활성화 등 5가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3년간 52억 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된 관광지 정비 및 관광환경 개선에 3년간 총 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아트 투어버스'의 경우 장욱진 미술관, 가나 아트센터가 있는 양주를 비롯해 동두천·연천 동북부 시군에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가평·남양주·포천·연천 등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경기동북부 광역시티투어'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4월 24일(수)  
음력: 3월 16일

수도권 날씨  
11~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10/16

동두천 10/17

가평 9/17

파주 10/17

서울 11/17

양평 11/17

인천 12/16

수원 12/16

용인 12/16

평택 12/18

백령도 9/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 폴란드 대통령 "핵무기 보유할 준비 돼있다" 미국 핵배치 긍정 /사진 뉴스1
- ▲ 中, 세계 최초 달 표면 '지질 정보' 담긴 고화질 지도 공개

- ▲ 美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확산... 바이든 "노골적 반유대주의 위험"
- ▲ 日, 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진행... 마이너스 금리 폐지 및 엔저 논의



- ▲ 日 국회의원 94명,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각료 1명도 동행 /사진 뉴스1
- ▲ 러, 美 우크라이나 지원 앞두고 공세 강화... 우크라이나 2대 도시 하르키우 맹폭

뉴스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